

사회적 기업 경기불황 '돌파구' 찾는다

광주·전남지역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경기불황 속 돌파구를 찾는데 정부가 힘을 보태기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21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10개 사회적 경제기업과 수출 활로 모색을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사회적 경제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다.

광주에는 현재 예비 사회적기업 32개, 인증 사회적기업 119개 등 총 151개 사회적 기업이 있으며, 여기에 사회적 협동조합 29개, 마을기업 57개, 자활기업 48개를 합하면 모두 285개의 사회적 경제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해오고 있으나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시장 경쟁력이 열악한 상황이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점차 감소하면서 사회적기업 자생력 확보를 위한 판로지원에 대한 정책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유아용 마스크를 제조하고 있는 H사 대표는 "수출 상담회에서 만난 해외 바이어가 요청한 외국어 제품카타로그, 홈페이지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중기부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요청했다.

패션소품을 제조업체 S사 대표는 "해외 판로확보를 위한 신규 바이어 발굴에 애로가 있다"면서 해외전시회에 지속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구했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사회적 경제기업의 이 같은 정책수요를 반영해 수출바우처사업 예산 5억원을 광주 전남 제주지역 사회적 경제기업에 배정하기

지방중기청, 10개 기업과 수출활력 간담회 시장 경쟁력 열악한 상황...예산 5억원 지원

로 하고, 오는 8월부터 지원할 방침이다.

수출바우처사업은 디자인 개발, 현지 시장조사, 무역교육 등 수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당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사회적 경제기업의 수출성공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도 해외바이어, 전문무역상사, MD(상품기획자) 등을 초청해 수출상담

회 및 품평회를 마련한다.

이제홍 지방중기청장은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의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지속가능성과 성장성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우리지역 사회적 경제기업이 수출을 통해 지속성과 혁신성장성을 갖춘 소셜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후성기자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보수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는 회원사 82개 중견 주택건설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국가유공자의 노후주택 91동을 무료 보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 주택은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받아 생활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위주로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8동, 부산 2동, 대구 9동, 인천 7동, 광주·전남 18동, 대전·충남 9동, 울산·경남 5동, 경기 19동, 강원 3동, 충북 1동, 전북 4동, 경북 2동, 제주 4동 등이다.

이들 지원대상 주택에는 1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돼 장마가 시작되는 내달 하순 이전에 모든 공사가 끝날 예정이다.

82개 참여업체는 지원대상 국가유공자와 협의를 거쳐 공사계획을 수립해 보수공사에 속속 착수하고 있다고 주건협은 설명했다.

주건협은 1994년부터 26년간 191억여원을 투입해 총 1천804동의 국가유공자 노후주택을 무료 보수했다.

/연합뉴스



코스피 나흘만에 상승 21일 코스피가 나흘만에 전 거래일보다 5.54포인트(0.27%) 오른 2,061.25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0.22원 내린 1,194.00으로 마감했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쏘라티 리무진에 OE 공급

유럽·국내 시장 겨냥 판매

금호타이어가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미니버스 '쏘라티(Solati) 리무진'에 20인치 규격 OE(신차용 타이어)를 단독 공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쏘라티는 유럽 및 국내 시장을 겨냥해 2015년 출시된 세미본넷(엔진룸이 승용차처럼 앞으로 튀어나온 형태) 타입의 LCV(경상용차)로, 국내에서는 현대차 전주공장, 해외에서는 모델명 H350로 터키공장에서 생산돼 판매되고 있는 차량이다.

쏘라티는 세련된 디자인에 최고 수준의 정숙성과 공간 활용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국내 시장은 물론 특히 해외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올해부터 쏘라티 리무진에 기존 포트란 KC53 제품을 업그레이드해 신규 공급 중이다.

포트란 KC53은 금호타이어의 LCV 전용 스테디셀러 제품으로 마일리지 향상 및 이상마모 방지, 내구성 향상, 핸들

링 성능을 향상시킨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현대자동차는 쏘라티 리무진에 장착되는 기존 주 규격인 16인치 타이어가 차체에 비해 작다는 판단과 앞으로 20인치 규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각 타이어사에 신규 개발을 의뢰했다.

하지만 금호타이어를 제외한 타사들은 기술적인 문제로 개발에 난색을 표했고 금호타이어가 단독으로 개발에 참여해 최종 성공했다.

특히 LCV 타이어의 경우 고하중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45편평비(저편평비)를 적용하면서도 기존의 승차감과 연비를 동등하게 유지시키는 기술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고강도 컴파운드 및 카카스 적용으로 내구성을 강화하는 한편 패턴 내마모 설계 및 슬터 부 강성 강화를 통해 이번에 금호타이어가 개발에 성공하며 세계 최초로 저편평비의 20인치 LCV 규격 제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

/임후성기자

“한마음 한뜻으로 주어진 목표 반드시 달성”

기아차 광주공장 '프로젝트 성공 결의대회' 개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양산 일정 준수를 비롯해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탬시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21일 연구동 대강당에서 임직원 및 협력사 대표가 함께한 가운데 “2019년 기아차 광주공장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달성을 다짐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올 하반기 출시를 앞둔 '하이클래스 소형 SUV'의 생산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품질을 조기에 안정화 시키고, 양산일정을 준수해 성공적인 데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가 힘을 합치고 더불어 각 소공장별로 추진 중인 다양한 프로젝트

만들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결의문 낭독을 통해 ▲양산 일정 준수 및 성공을 위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주어진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 ▲지금껏 선택해준 고객사랑에 적기 공급 및 완벽한 품질의 차량으로 보답할 것 ▲고객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정직하게 일하고 전심전력으로 헌신할 것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2019년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모두가 협심할 것을 결의해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하이클래스 소형 SUV'는 기아차의 새로운 글로벌 소형 SUV로 혁신적이고 대범한 스타일과 차별화된 감성적 가치가 응축된 '컴팩트 시그니처'를 핵심 키워드로 개발됐다.

난방비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 ①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20℃입니다. 난방온도 1도 낮추면 에너지사용량을 7% 줄일 수 있습니다.
- ② 북쪽이와 문풍지로 외풍을 막으면 실내온도를 2~3도 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 ③ 내복, 양말 등 실내에서 방한용품을 활용하면 체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④ 전열기는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하고, 사용 시에는 소비전력을 꼭 확인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연봉 5천만원 “대기업 6.6년·중소 10.5년”

583개 기업 대상 조사 결과

직장인들이 연봉 5천만원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10년 가량, 역대 연봉에 도달하기까지는 20년 넘게 걸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최근 58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사 이후 연봉 5천만원 달성 기간은 평균 10.3년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이 평균 6.6년으로 가장 짧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9.3년과 10.5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 규모와 연봉 수준이 대체로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기업은 임사 5년차 이하에 연

봉 5천만원을 받는 비율이 44%에 달했으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16%와 8%에 그쳤다.

조사 대상 기업의 신입사원 첫해 연봉은 평균 2천662만원이었으며, 역시 대기업이 3천39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견기업(3천155만원)과 중소기업(2천562만원)의 순이었다.

이른바 '꿈의 연봉'으로 불리는 1억원 연봉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20.6년이었다.

조사 대상 기업의 전체 직원 가운데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비율은 7.4%였으며,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직원이 단 한명도 없는 기업도 전체의 38.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전통 남도 한정식의 명가!
가족회관

삼계탕, 소꼬리곰탕

한정식 1인: 2만 5천원부터 ~ 10만원까지 <맞춤형 주문가능>

저녁특선 2만원(3인 이상)
점심특선 한정식(1인 20,000원, 3인 이상 18,000원)

▶ 결혼피로연, 각종모임, 상견례 전문, 맞춤형 가격 주문가능. ▶ 가족회관: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59-15 (동명교회 옆)
▶ 예약전화:062)222-3845 (가족회관 건너편 대형주차장 완비)

알파 카피 센터 광주보건대점의 새로운 운영자를 찾습니다!

문구생활·편의Shop - Alpha www.alpha.co.kr 광주보건대점 T 263-4993

매각 합니다

보증금 - 3,000 만원
물품 - 3,000 만원
기계 - 2,500 만원
권리금 - 2,500 만원

1억 1,000 만원

알파 카피 센터 광주보건대점 | 문의 : 010-4821-8929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문대로 419번길 55 보건대점